

사회

광역시중 광주만 사교육비 올랐다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21만6천원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 74% 전국 3위

■ 시·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감률 (단위: 만원, %)

구분	전북	인천	대구	강원	대전	경남	울산	경기	전남	부산	충북	충남	광주	경북	서울	제주
2010	16.4	22.0	25.0	18.4	23.8	20.4	23.1	27.1	16.8	20.8	17.4	17.8	21.3	18.7	32.1	18.6
2011	15.5	21.4	24.4	18.0	23.4	20.2	22.9	26.9	16.7	20.7	17.4	17.9	21.6	19.0	32.8	19.8
증감률	-5.5	-2.7	-2.4	-2.2	-1.7	-1.0	-0.9	-0.7	-0.6	-0.5	-	+0.6	+1.4	+1.6	+2.2	+6.5

(자료: 교과부)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광주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유일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사교육 참여율은 73.9%로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아 방과후 학교 활성화 등 교육비 경감 대책이 절실하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이 지난 17일 전국 1081개 초·중·고 학부모 4만6000명을 대상으로 한 2011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다. 광주의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1만6000원으로 전년(21만3000원)보다 1.4% 증가했다. 전남은 16만7000원으로 2010년(16만8000원)보다 0.6% 감소했다.

월평균 사교육비가 증가한 곳은 모두 5곳으로 제주(6.5%)가 가장 높았으며 서울(2.2%), 경북(1.6%), 광주(1.4%) 순이었다. 전국 6대 광역시 중 광주를 제외한 인천(2.7%), 부산(0.5%), 대구(2.4%), 대전(1.7%), 울산(0.9%)은 월평균 사교육비가 감소했다.

광주의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은 중·고교생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진 때문으로 풀이됐다. 중학생의 경우 2010년 총 사교육비 규모가 1995억원이었으나 2011년 2083억원으로 88억원(4.4%) 증가했다. 고교도 1232억원에서 1299억원으로 67억

원(5.4%) 늘었다. 초교는 3258억원에서 3020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2011년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의 경우 초등학교는 2010년보다 2.1% 감소한 22만9000원이었으나, 중학교는 6.8% 오른 25만2000원, 고등학교는 4.6% 오른 15만9000원이었다.

특히 광주 중학교의 월평균 사교육 참여율은 2010년보다 1.3%포인트 줄어든 73.9%였으나, 대구(76.9%), 전남(75.4%)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았다.

교과부는 광주 등 사교육비가 증가

한 지역은 중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율과 EBS 활용률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 광주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국 평균(24만원)을 크게 밑돌았으나, 16개 시·도 가운데 6번째로 많았다.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드는 곳은 서울로 32만8000원이었으며, 경기(26만9000원), 대구(24만4000원), 대전(23만4000원) 순이었다.

전남(16만7000원)은 전북(15만5000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사교육비가 적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19일 휴일을 맞아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문화관내 영풍문고를 찾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신학기 참고서 등을 고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여고 교사가 학생 주민번호 도용

인터넷 홈쇼핑 가입 이벤트 응모 상품 받아

업체 여학생에 문의 탄로 ... 해당 교사 사직서

광주의 한 여고 현직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학생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몰래 인터넷 홈쇼핑 사이트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교사는 학생들의 주민번호 등 모든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지금까지 전적으로 학생 개인정보관리를 교사의 자질에 맡겨 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문제는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광주북부경찰은 19일 "대학생 A양(19)의 어머니 남씨에게 모 여고 교사 오모(52)씨를 자신의 딸 주민번호를 도용해 정직적 피해를 주고 부당한 이익을 취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오씨는 7년 전 자신이 담임을 맡으면서 알게 된 A양의 주민번호로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인터넷 홈쇼핑 사이트 이벤트 등에 응모해 상품

을 받는 등 딸의 주민번호를 수차례 사용해 왔다.

이 과정에서 오씨는 A양에게 이 내용을 알리지 않았으며 이벤트에 당첨돼 받은 상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A양이 인터넷 홈쇼핑 회사로부터 이벤트 참여 감사 전화를 받으면서 밝혀졌다.

A양은 이 전화를 받고 인터넷 홈쇼핑 개인정보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자신의 담임교사였던 오씨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A양 어머니 남씨는 "주민번호 도

용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홈쇼핑 개인정보 담당자로부터 자신의 딸 외에도 이런 일을 당한 학생이 2~3명 정도 더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하고 가르쳐야 할 교사가 어떻게 이런 일을 벌였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내 딸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이런 피해를 당했을 것이고, 개인신상정보를 확보한 그가 또 다른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몰라 고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오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접속하며 총동적으로 받은 일이며 A씨의 주민번호 외에 도용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사태의 파장이 커지자 오씨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학교법인은 사직처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씨를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중국산을 장애인 제품처럼...

관공서 납품 6억 부당이득 경찰, 복지시설 원장 입건

광주경찰청 수사2계는 19일 중국에서 수입하거나 일반인이 생산한 물품을 증명장애인이 만든 것처럼 속여 관공서에 납품해 온 광주 모 복지시설 원장 이모(65)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환경시설공단 등 광주·전남 30여 주요 관공서에 장애인 생산한 컴퓨터 복사용지, 화상지, 장갑 등을 납품하면서 이 중 일부를 장애인

생산품이 아닌 제품을 함께 납품하는 등의 방법으로 6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공공기관은 물품구입예산 중 1%는 장애인생산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는 점을 이용, 지속적으로 이 같은 짓을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수억원은 판매시설 관매원을 고용하거나 차량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고, 현재 일반물품은 배제하고 장애인 생산품만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매곡동 이마트 설계 건축사 불기소

건축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 영향 미칠 듯

검찰이 논란이 됐던 광주시 북구 매곡동 이마트 건축허가와 관련 건축사들에 대한 건축설계도서 허위작성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가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해 진행중인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우석)는 최근 매곡동 이마트 건축허가 관련 건축사들에 대한 건축설계도서 등 허위작성 혐의 고발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건축사로서 국유지가 포함돼 있는 사실을 숨기거나 국유지가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닌 이상 건축사법에 따른 조사 및 검사를 허위로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건축도면 등에 연결통로, 기초 및 슬라브의 구조 등이 표기돼 있는 등 설계도면을 허위로 표시한 것이 아닌 이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구청은 지난해 7월25일 광주시

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여 매곡동 이마트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하나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건축물인 것처럼 설계하고, 지표면을 사실과 달리 높게 잡아 건축주에 유리하게 건폐율 등을 산정하는 등 허위로 설계도면을 작성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사들을 북부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마트는 지난 2010년 11월30일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혼재된 북구 매곡동 1-5 및 12필지에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 지상 4층 지하 4층 판매시설 등 2동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인근 소상공인들이 주민감사를 청구해 광주시가 감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결정과 건축허가신청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는 별개 사안"이라며 "이번 결정이 미칠 파장을 생각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시민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60대 골퍼 카트서 떨어져 숨져

원인 놓고 골프장-유족 대립

골프장 경사로에 서 있던 카트가 미끄러지면서 골퍼가 떨어져 60대 골퍼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카트가 미끄러진 원인에 대해 골프장 측과 유족 간 의견이 대립돼 경찰이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곡성경찰은 19일 "지난 14일 오후 2시20분께 곡성 한 골프장에서 골퍼를 치던 문모(67)씨가 카트에서 골퍼 떨어져 의식불명상태였다가 지난 17일 숨져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동반자와 캐디, 골프장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한 뒤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인들과 후반 첫 홀에서 티샷을 먼저 끝낸 뒤 경사로에 있던 카트의 조수석에 올라 동반자들을 기다리던 중 카트가 갑자기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미처 이를 제어하지 못하자 뛰어 내려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경찰에서 캐디 등 골프장 관계자들은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작동 조작없이 카트가 움직일 리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문씨의 장례절차가 끝난 뒤 이들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동부취재본부=김계종기자 kjkim@

3남매 학대 부추긴 女 구속

세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이버 목사 부부에게 엄격한 기도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범행을 부추긴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보성경찰은 19일 "3남

매를 굶기고 엄격한 체벌을 가해 숨지게 한 사이버 목사 박모(43)·조모(여·34)씨 부부에게 범행을 지시한 장모(여·45)씨를 상해치사 교사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나원침 (8505) 김장동



근무평정제도 개선 광주서도 판사회의

법관 책임용 심사와 근무평정 제도 개선을 위한 판사회의가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광주지방법원은 19일 "오는 21일 오후 5시 지법 6층 회의실에서 판사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기호(42·연수원 29기) 판사 책임용 탈락으로 촉발된 판사회의는 서울중앙지법, 서부지법, 남부지법, 수원지법 등 수도권 법원에 이어 광주, 수원, 대전 등 전국 7곳에서 열리게 됐다. 판사회의는 내규 제5조 제3항에 따라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가 가능하며 광주지법의 경우 단독판사 34명 중 22명이 판사회의를 요구해 소집됐다.

광주지법에서 단독판사회의가 열리는 것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게임' 논란과 관련 지난 2009년 5월19일 이후 3년여 만이다. 당시 광주고법에서는 광주지법에 하루 앞서 전국 첫 고법 배석판사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담배 피운다" 나무라자 주먹질

○"늦은 시각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던 여고생이 자신을 나무라는 20대 남성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경찰서행.

○"1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광주 모 고등학교 1학년 염모(16)양은 지난 18일 밤 10시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모 PC방 앞에서 이 PC방 주인 김모(26)씨의 얼굴을 2차례 때렸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염양은 이날 김씨의 PC방 앞에서 친구 10여명과 어울려 담배를 피우다가 김씨가 "시각이 늦었는데, 어린 것들이 집에 안가고 담배를 피우셔야 되겠느냐"고 훈계하자 화끈해 주먹질.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예약접수 중 **선배 합격자가 말한다!** **개강: 3월 2일**

2012년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국·경·직]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최고의 시설!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 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9급 종합반** **법원사기보** **7급 검찰직** **소방직** **한빛고시학원** **농업직** **9급 아간반** **기술직** **사회복지직** **명품 명품반**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